

장난감 시장 '키덜트' 뜬다

〈Kid+Adult〉

지난 24일 광주신세계 1층 컬처스퀘어 '키덜트 뮤지엄, 프라모델 페어' 전시장. 아이들과 같이 온 젊은 아빠 프라모델 건담 앞에서 움직일 줄을 모른다. 회사원 주영철(가명·42)씨는 옛 추억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해 탱크나 배, 비행기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프라모델'을 구입해 얼마 몰래 조립했던 경험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프라모델 등 장난감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문화·소비 트렌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키덜트족'을 겨냥한 이색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키덜트는 키드(Kid 아이)와 어덜트(Adult 어른)의 합성어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강하게 건넨다고 있는 어른이 나이 들어서도 어릴 적 경험을 되살릴 수 있는 장난감·인형·의류·액세서리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시대 트렌드다.

실제로 25일까지 광주신세계에서 진행된 키덜트 뮤지엄과 프라모델 페어에는 15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시절 추억 아이와 함께 프라모델 조립하고 자동차 조종 문화·소비 트렌드 자리매김

영화 속 로봇캐릭터를 재현한 높이 약 2m 사이즈의 대형 피규어(트랜스포머 옵티머스, 범블비 등) 및 유명 만화 로봇캐릭터 피규어(건담시리즈 등) 170여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전시기간 중 매주 주말 열린 'RC레이싱 대회'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RC는 'Radio Control', 즉 무선으로 조종하는 미니 자동차를 말한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주를 이뤘고 아빠들이 더 신나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키덜트 소비 트렌드는 장난감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경기침체로 한동안 주춤하던 완구시장이 '장난감 홀릭 부자(父子)'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전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담과 같은 프라

모델이나 피규어 시장규모만 약 2500억 원, 국내 완구 시장 전체는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 완구의 경우 일부 인기 상품이 시장을 독식했지만 키덜트족이 생겨나면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완구 담당 직원은 "레고 한정판, 심심 가족 패밀리, 건담 등 신제품 출시를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한 번 구매 시 박스 단위 등 대량 구매를 원하는 구매에도 수 십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키덜트 족과 함께 아이와 자신을 위한 장난감을 구매하는 프레디족(Friend)과 아빠(Daddy)이 늘면서 전동용 승용차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빠에게는 BMW, 아우디 등 유명 브랜드의 자동차를 대리 구매하는 만족감을 주고, 아이에게는 훌륭한 놀이기구가 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는 전동 승용차 매출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5일까지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키덜트 뮤지엄과 프라모델 페어'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한 고객이 작품이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증권 호남포럼' 올 첫 강좌 28일 열린다

삼성증권 광주지점(호남사업부장 김태현)이 주최하는 삼성증권 호남포럼 올해 첫 강좌가 오는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otel 5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1부에서는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최근 뜨거운 이슈인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및 후강동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

이다. 2부에서는 채권투자 전문가인 전범식 삼성증권 채권상품팀 팀장이 2015년 금리전망과 함께 채권투자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0 11 12 20 27	3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077,935,106	1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3,250,483	54
3	5개 숫자일치	1,057,757	2,208
4	4개 숫자일치	50,000	101,514
5	3개 숫자일치	5,000	1,562,975

새해 새 설계

이주현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대형공사 공동도급 지역업체 49%이상 참여”

수주 물량 확대에 주력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 활로 찾을 것



“전국에서 건설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광주의 특성상 지역 경제도 상당 부분 건설업에 기대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업을 살리고, 지역 업체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지역내 무 공동도급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주현(72)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지난 2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건설협회는 지역업체 수주 물량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형공사에 대한 분할발주와 지역업체가 49% 이상 공동도급참여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주요 발주기관에 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소통 및 상호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건설 관련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공조를 강화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사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관내 공공공사 발주는 2113억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43.8%나 감소했다. 공사 건수 또한 32.5%가 줄어 광주지역 256개 업체 중 52%인 132개 업체가 1년 동안 단 한 건의 공공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회장은 “그나마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도 예산 절감을 위한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기업 경영에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업계 현실을 지적한 뒤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효과가 가장 큰데다 서민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회장은 “공사 발주계획 단계부터 광주시가 공구분할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외지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확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설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광주시 및 시의회에 꾸준한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시법학교와 조선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시 핸드볼협회 회장과 법무부 법사위원, 광주지역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여론따라 결정될 것”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 “순리대로 잘 될 것”이라며 “여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任洋)중국 국무원 부총리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금호산업) 인수전은 매스컴에서 잘 도와주면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내가)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잘될 것이고,



근 지분율을 2.2%가량 줄인 대주주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김상렬 호반건설 회장과 사이는 좋다”면서 “(호반건설의 금호

산업 인수 포기설에 대해서) 호반건설 쪽에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23일 금호산업 주식 34만8000주(1.21%)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1만7000주, 33만1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호반 측은 지난해 11월 금호산업 주식 171만4885주(5.16%)를 사들인 뒤 지분율을 6.16%까지 늘린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노조 투표서 가결... 오늘 조인식

해를 넘겨가며 역대 최장기 교섭기간을 기록한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4 임금 단체교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5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와 곡성, 팽태공장별로 찬반투표를 치른 결

과 2674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임금합의안에 찬성 1706명(63.8%), 단협합의안에 찬성 1649명(61.6%)으로 모두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0일 기본급 15% 인상(5%는 2014년 4월1일 소급 적용)과 상여금 200% 환원, 격려금 510만 원 지급, 임금 체계 및 노사공동조사위원

회 운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단체교섭 조인식은 26일 오전 진행됐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금호타이어 노사의 임단협 타결 환영 논평을 내고, “금호타이어 노사가 접점을 찾으며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지역민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며 “지역경제 및 지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기발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왕갈비(6,000원) 볼백 (6,000원)

6.25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합류수 있는 우리 지역공주의 분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출브랜드로 손님을 꼭 만족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